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회복을 위한 대헌장  
A Magna Carta for Restoring the Supremacy of Jesus Christ

21세기 교회를 위한 예수 선언  
A Jesus Manifesto for the 21<sup>st</sup> Century Church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바꾸어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한데 모으고, 그것들에게 중요성과 현실성, 그리고 의미를 주는 중력의 당기는 힘(the gravitational pull)이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은 가치를 상실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들은 우주 안에서 떨어져나간 조각처럼 부유하게 된다.

모든 영적 진리, 가치, 덕, 은사의 구현이며 화육이신 그리스도를 잊은 채 영적 진리, 가치, 덕, 은사를 강조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리, 가치, 덕, 또는 영적 은사를 추구하면서 생명력을 잃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품으며, 그리스도를 알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 안에 모든 진리와 가치와 덕과 은사가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사랑스럽고 사랑할만한 존재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독교는 이념이 아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다. 기독교는 한 개인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 참됨, 선함에 관한 “복된 소식”이다. 성경의 공동체는 그 개인에게 연결된 곳에서 세워지고 발견된다. 회심은 방향의 전환 그 이상으로 관계의 변화이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고대 히브리어 슈브(shubh) 또는 아랍어 동의어에서 “회심”에로의 부름은 하나님을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중심에 계시는 관계 속으로 들어 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속에서 엄청난 단절을 감지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예수 결핍 장애(JDD: Jesus Deficit Disorder)라고 믿는다. 개인으로서의 예수 점점 더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게 여겨지며, 예수는 “정의,”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리고 “리더십 원칙”의 언어로 대체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성을 중심으로 품도록

부르시고 계심을 느끼는 것을 고백한다. 특별히.....

1. 크리스천의 삶의 중심과 들레는 인격체이신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에 관해 연결된 것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그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의 시각에서는 감추어져 버린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를 심오하고, 깊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무한한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은 첫 크리스천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추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잘 못된 것들을 고치시려는 것보다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신다.
2.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가르침과 분리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다. 소크라테스도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나의 명상을 따르라”고 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나의 말을 따르라”고 했다. 모하메드는 제자들에게 “나의 고상한 기둥들을 따르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추종자는 창시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고도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과 분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는 그의 가르침의 구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 또는 사회적 가르침의 창시자로 취급하는 것은 심대한 오류이다.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은 하나이다. 매체와 메시지는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의 성육신이시다.
3.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와 영원한 목적은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머리)와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지체) 안에서 중심이 된다. 이 우주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자신으로 채우시는 완전함의 마지막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선교적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과 목회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심장이며 혈관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줄거리를 놓치는 것이며, 곧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4.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식(implantation)과 첨가(impartation)에서처럼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성육신(incarnation)-하나님께서 아기의 형태와 인간적 접촉으로 우리와 연결되었다는 뜻-은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교리이다. 성육신은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시면서 일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성육신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물론 동일한 성례전적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말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장난감과 자질구레한 놀이감을 구할 수 있는가? 어찌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은사를 탐하고 종교적, 영적인 것들을 바랄 수 있는가? 우리는 전능자의 불과 선물로 주신 신적 삶에 의해 하늘에서부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 아들 자신의 부활의 삶으로 우리의 생명은 사망을 이겼다. 어찌 우리가 열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가?

질문을 하자면 주님의 놀라운 삶의 엔진 또는 가속페달은 무엇인가? 주님의 외적 행사의 골은 뿌리 또는 원류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주하시는 아버지께 의해 사셨다는 사실이다. 그가 부활한 후 그 길은 제거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께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당신과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삶과 아버지와 관계를 함께 나눈다.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을 닮도록 강요하는 것과 이식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의 바다가 존재한다. 전자는 단지 실패와 좌절로 끝나게 된다. 후자는 삶의 관문이며 우리의 삶과 죽음의 기쁨이 된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한 말에 동의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숨쉬며 존재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고 순종”(응답)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가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5. “역사의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와 단절될 수 없다. 갈리리 해변을 걸으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에 안에 내주하시는 분과 동일한 분이시다. 마가복음의 예수님과 바울의 골로새서의 놀랍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우주적 그리스도 사이에 단절은 없다. 1세기에 사셨던 그리스도는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다. 그는 또한 시간 이후에도 존재한다. 그는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시작이고 나중이시고, A이시며 Z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이 되신다. 그는 미래에 계시고,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에 계시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내주하신다. 이 역설적 진리를 품지 못할 때 터무니없는 문제를 만들어 내왔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축소시켜왔다.
6.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혼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핵심 가치”라고 뜻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다. 그는 알려지고, 사랑 받으며, 경험되고, 경외 받으시며, 구현 되시는 실재하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의 목적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의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힌 기쁨 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에 반하여 예수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로, 모든 관계의 하나님으로 다르게 생각하도록 이끈다.
7.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운동가도 도덕철학자도 아니다. 그를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의 영광을 저버리는 일이며, 그의 탁월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정의는 죽은 것이다. 지옥의 문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정의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 평화, 성결, 공의의 구현이시다. 그는 모든 영적인 것들의 통합이시며, 우주의 “기이한 끌개”(the strange attractor)이시다. 예수님이 추상적 개념이 되었을 때 신앙은 재생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
8. 예수님에 관한 학문적 지식 또는 신학과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인격적 지식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둘 사이는 천 억 개의 은하수 사이만큼 멀리 떨어져있다. 그리

스도의 완전성은 전두엽만 가지고는 결코 접근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이 되려고 한다. 그러나 또한 궁극적 신비에 이르려고 하기도 한다. 커다란 머리로 인한 문제의 해결은 커다란 마음에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직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콜리프노트를 남겨 놓으시지 않으신다. 그는 제자들에게 숨결과 몸을 남겨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일관되고 분명한 신앙체계를 남겨 놓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루만질 상처와 치유의 손길을 남기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적 신앙이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남겨 놓지 않으신다. 그는 제자들에게 관계적 신앙을 남기신다.

크리스천들은 책을 따르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한 사람을 따른다. 그리고 “성경”이라 불리는 신적 영감으로 쓰여진 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따르도록 가장 잘 도와준다. 기록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준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한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성경은 목적지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복극성 같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는 나침반이다.

성경은 삶을 위한 계획이나 청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 “복음”은 일단의 새로운 법칙이나, 일단의 윤리적 명령, 또는 새롭고 개선된 계획이 아니다. “복음”은 사도신경에 나타난 한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신앙의 신비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한다. 기독교의 의미는 복잡한 신학적 교리에 대한 충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삶을 부나 건강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성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어지는 세상의 사는 한 방식인 열정적 사랑에서 얻어진다.

9.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무의미를 꿰뚫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와 구별이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사실상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오직 그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알려진다.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그리스도 이시며 이는 교회(에클레시아)를 통해 알려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은 개인적 추구가 아니다. 이는 협력의 여정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알려지는 것은 개인적 성찰이 아니다. 단독비행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땅에 떨어져 깨어져 버릴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밀접히 연합되어있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 찾아진다. 그리

고 하나님께서도 이로써 기뻐하신다.

10. “오, 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노래하는 세상에서 “오, 모든 것을 예수와 같이 되게 하자”라고 노래하는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가!”라고 노래할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최소한 침대에서 일어나고, 소파와 의자에서 나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목적을 향해 영적 비상(飛翔)을 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주의 권리와 관심을 위해 이 땅에서 산다. 우리는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우리는 집합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 땅 위에 두셨다. 십자가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위에 탁월하시고, 주권자이시며, 머리가 되심을 증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얼굴에서 전능자의 손길을 발견한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그리스도의 깊음을 부여잡고, 그의 풍성함을 발견하며, 그의 생명을 만지고, 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안다.

이 선언문을 작성한 우리 두 사람은 경제학, 글로벌리즘, 정치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론, 종말론, 구속론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의 최근 저작, “영원에서 여기까지”(From Eternity to Here)와 “너무나 아름다움”(So Beautiful)에서 우리는 한 음색을 내었다. 이 저술들은 본 선언문에 선언문이 된다. 이 두 책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전을 드러내며, 이것이-“한가지 아는 것”(요한복음 9:25)-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 한 가지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길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를 따르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을 설교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에게 핵심 가치를 지적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가리켜 준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300여 년 전 한 독일 목사가 찬송 중에 으뜸이 되는 한 찬송을 지었다.

나를 기쁘게 하고 감동케 하는  
내가 아는 위대한 것을 당신께 아뢰입니다  
얼마나 큰 상급을 내가 받을까?

누구의 이름 안에서 내가 영광을 돌리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쁘게 하고 감동케 하는  
내가 아는 위대한 것을 당신께 아뢰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일어나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시고,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우리가 추구하는 분이며, 우리의 열정이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 선언문과 그 의미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면 “예수 선언문 블로그”(A *Jesus Manifesto Blog*) <http://ajesusmanifesto.wordpress.com/>오 들어오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선언문을 읽는 동안 유튜브에서 [\*Give Me Jesus\*](#)를 들으시길 권합니다.

[www.LeonardSweet.com](http://www.LeonardSweet.com)

[www.FrankViola.com](http://www.FrankViola.com)